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7월 8일)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녹색사찰 '등록 50호' 뚝심의 '그린 부디즘'

2018년 '고양 금륜사'가 1호
5년간 전국 50여 사찰 등록
비닐 · 종이컵 일회용품 없애
사찰별 노하우 공유하며 소통

타종교 대비 확산 속도 더뎌
대부분 녹색사찰 유지 '긍정'
"지역사회 환경주체가 목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8년 7월 고양 금륜사를 1호로 시작된 불교환경연대의 녹색사찰이 5년여 만에 전국 50개 사찰로 늘어났다. 연간 평균 10개 사찰이 녹색사찰운동에 동참하면서 확산세는 더디지만 환경인식 개선 효과만큼은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사찰 50호의 주인공은 고양 법문사(주지 일문)다. 지난 8월 16일 경내에서 불교환경연대와의 협약을 통해 녹색사찰로 이름을 올렸다. 법문사는 불교환경연대 부설 비로자나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의 제1호 발전소인 '비로자나고양햇빛발전소' 이기도 하다. 지난 6월 고양시에 42.48㎾ 용량의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정도로 환경에 관심이 높은 사찰이다. 같은 날 저녁, 울산에선 황룡사(주지 황산)가 울산불교환경연대와의 협약으로 녹색사찰 51호가 됐다.

어느덧 만 5년을 지나온 녹색사찰운동. 이전까지 불교환경연대의 환경운동은 굵직한 국책사업에 대한 투쟁이 주를 이뤘다. 2001년 사패산 관통 터널 개발을 비롯해 새만금 간척, 4대강 사업,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개발 등에 앞장서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 사이 빈그릇운동과 생태방생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 했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국책사업들로 인해 크게 조명 받진 못했다.

이런 불교환경연대가 녹색사찰운동을 기획한 건 대형 이슈에 대한 선도적 투쟁만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찰에는 대중이 있고, 대중의 힘으로 환경운동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녹색사찰로 이어졌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불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꼭 해야 하는 일을 해보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연기사상만으로도 생태계 파괴는 곧 인류 생존의 문제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라고 설명했다.

녹색사찰 1호는 2018년 7월 8일 '일회용품 안 쓰는 녹색사찰 실천협약'을 맺은 고양 금륜사다. 이보다 두 달 앞서 '일회용품 없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하며 점차 경내의 일회용품을 걷어내기 시작해 녹색사찰로 등록한 것. 비닐을 쓰지 않기 위해 떡을 뻥튀기에 올려 나눠주기도 한 금륜사는 신도들에게 각자 용기를 챙겨올 것을 당부했다. 4호 사찰인 의정부 석림사도 '석림사 회수용'이라고 쓴 다회용기를 활용해 팥죽과 떡을 나눴다. 2021년 12월, 30호 사찰로 등록한 한마음선원은 EM발효액을 보급해 다른 사찰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왔다.

녹색사찰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활동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불단을 장엄할 때는 일반적인 꽃꽂이 대신 화분을 사용하고, 보자기를 모아 천주머니를 만들어 나눠주거나 남는 신문지로 종이봉투를 만드는 사찰도 있었다.

이렇게 약 5년간 탄생한 50여 개의 녹색사찰. 안타깝지만 숫자로는 이웃종교에 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개신교는 이미 녹색교회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고, 매년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선정해 '환경주간 공동기도문'과 별도의 예배자료까지 활용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녹색사찰이 이웃종교에 비해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일회용품 안 쓰기'를 꼽는다. 여러 사찰에서 녹색사찰 등록 문의를 해오지만 경내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하나만으로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주영 사무총장은 "일회용품 안 쓰기가 한편으론 녹색사찰의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그만큼 확고한 결의이기도 하다"며 "예상한 것보다 녹색사찰 등록 수는 적어도 진짜배기들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5년여의 세월 동안 녹색사찰로 등록했다가 이름을 내린 곳은 서울 열린선원 한 곳뿐이다. 다른 사찰들은 주지스님이 바뀌더라도 녹색사찰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대부분의 녹색사찰이 공찰이 아닌 사설사암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불교환경연대의 녹색사찰운동 목표는 개별사찰의 내부적인 환경운동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것이다. 사찰이 기후행동의 주체로서 환경교육이나 캠페인을 하고,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 지부를 늘려 지역단위 소통에 힘쓸 계획이다.

한주영 사무총장은 "녹색사찰이 단순히 늘어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찰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환경을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적 삶을 살 수 있게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월 16일 불국사 무설전을 찾아 성타 대종사 영단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조계종 원로의원 나가 성타 대종사 원적

8월 15일 오전 불국사서
19일 범영루서 영결식 엄수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나가 성타 대종사〈사진〉가 8월 15일 오전 11시 20분 불국사에서 법랍 72년, 세수 83세로 원적에 들었다. 분향소는 불국사 무설전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19일 오전 10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불국사 범영루 앞 광장에서 엄수됐다. 〈차주상보〉



성타 대종사는 '여시래(如是來) 여시거(如是去) 차생사(此生死) 불가언(不可言)'이라는 열반게를 남겼다. 뜻은 '이와 같이 왔다가 이와 같이 가는데 이러한 생과 사는 말로 해서 무엇하리'다.

성타 대종사는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2년 학성선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8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1년 통도사 강원 대교과 졸업 후 제6·7·8·10·11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포교원장과 호계원장, 불국사 주지,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성림문화재연구원 이사장,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조계종 종정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포장, 국민훈장 모란장 등 불교계와 정부차원의 다양한 수상 이력을 갖고 있다.

저서로 〈마음 멈춘 곳에 행복이라〉 〈금오집〉 〈자연과 나〉 등을 비롯해 번역서 〈불소행찬〉, 다수의 논문 등을 냈으며, 지난해에는 학인시절부터 쓴 일기와 법문 등의 기록을 엮어 〈노을을 등지고 달을 벗 삼아〉를 출간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성파 종정예하 "도반이 떠나간다" 애도

8월 16일 무설전 찾아 추모
진우 스님 등 각계 조문행렬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8월 16일 오후 6시 30분 불국사 무설전을 찾아 하루 전 원적에 든 성타 대종사를 조문했다. 불국사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의 안내로 무설전을 방문한 성파 대종사는 성타 대종사의 영단에 헌화와 삼배로 조문하고 "도반이 자꾸 떠나간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문도대표 정문 스님과 상좌스님들을 위로했다.

성파 대종사는 방명록에 '성파(性坡) 근조(謹弔) 구배(九拜)'라는 글귀를 남기며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성타 대종사를 추모하기 위한 불교계 안팎의 조문행렬은 계속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16일 무설전을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성타 대종사님은 원로의원으로서 종단발전에 기여하셨고, 후학과 포교를 위해 많은 불사를 하셨다"고 회고했다. 또한 진우 스님은 방명록에 '큰스님 속환사바 광도중생 하소서'라고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성타 대종사를 애도하는 조문행렬은 꾸준히 이어졌다.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인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제10교구본사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과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등이 조문했다.

배철완 대구경북지사장

